

지역 소식통

정읍시장, 수확기 벼 베기 농촌 일손 지원

유전집 정읍시장이 코로나19로 지친 농가를 위로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8일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옹동면 신성리 권혁동(6세) 농가의 벼 베기 현장을 방문해 수확 작업에 동참했다.

또 인근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농산물 판로 차질과 인력난 부족 등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을 위로·격려했다.

유 시장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감사드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유관기관, 농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많은 농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벼 베기를 10월 초순부터 본격화해 11월 초순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정읍시 쌀 생산 계획은 139251a 면적에서 약 716천톤으로 이는 전라북도 쌀 생산량의 약 12.5%를 차지하는 양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수료식 진행

정읍시가 지난 7일 신태인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1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의 이해와 워크숍 운영, 심화학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주민주도형 교육과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 해결 등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수료식은 20여 명의 수료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총 6회 18시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이해, 주민의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등 도시재생의 의미를 세우고 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 청년들을 위한 공유가게 오픈

정읍시SK넥셀리스 생고을시장 인근에 1·2호점 신설... 청년창업 생태계 지면 확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 천변로 생고을시장 인근에 예비 청년 창업자와 로컬 창작자를 위한 공간 '공유가게 1·2호점'이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공유가게는 정읍시와 SK넥셀리스가 지역 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Joy n 정읍(이하 조인정읍)'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창작자와 청년 창업자가 판로를 마련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공유가게는 각 50평과 15평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했으며, 3~6개월 단위의 팝업 스토어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다양한 로컬 창작자와 예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SK넥셀리스는 원도심이 정읍의



시그니처 지역으로 인지도 높일 수 있도록 공유가게 1·2호점을 중심으로 신규 점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공유가게 1호점의 첫 입점 업체는 정희진 푸드 디렉터가 이끄는 '레스토랑 22'다. 다이닝 레스토랑 기획과 운영 경험을 살려 정읍의 특산물인 한우, 귀리 등을 활용한 유러피안 메뉴와 와인을 판매한다. 특히, 주기적

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사진작가를 초청해 정읍 시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공유가게 2호점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로컬 창작자 모어앤모어가 입점했다. 모어앤모어는 내장산, 피향정 등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특화된 조향 제품을 비롯해 정읍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제작·판매한다.

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경우 청년발전기금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창업 생태계 지면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시민이 직접 도시기본계획 만든다

정읍시민참여단 60명 위촉... 도시미래상 확립·지역발전 정책 제안

정읍시가 시민과 지역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수립 전에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의 미래상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만 19세 이상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남녀노소, 각계각층에서 총 6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4개 분과(도시·주택, 문화관광·경제, 교육·복지, 교통·환경안정)로 나뉘어 정읍시의 미래상과 비전 설정, 주요 이슈 도출, 권역별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등

정읍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내장산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2040년 정읍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열었다.

시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 새로운 정읍'을 주제로 20년 후 미래를 담아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2040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단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 위도 위령탑보존회,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

올해 28번째 위령제 거행

부안군 위도 위령탑보존회(회장 신명)는 지난 10일 서해훼리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넋을 기리는 제28주기 서해훼리호 참사 추모 위령제를 위도면 서해훼리호 위령탑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모위령제는 유가족을 비롯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4천만원의 사업비를 부안군에서 지원하여 28년된 안내관 등 노후시설을 재정비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추모공간인 위령탑까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했던 진입로를 개선하여 쾌적한 추모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 서해훼리호 참몰참자는 지난 1993년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승객을 태운 서해훼리호가 위도 파장급항에서 격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했다. 이 사고로 58명의 위도면 주민을 포함한 탑승객 202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95년에 사고 해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진리연못 끝에 위령탑을 건립해 매년 10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자봉센터·부안군향우회, 사회공헌 실천 업무협약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지난 8일 부안군향우회(회장 이운복)와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애환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부안군 향우회와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향우회는 일본 정부 방사



능 오염수 방류철폐 캠페인, 위도면 환경교육에 진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경정화 활동 농촌 일손 돕기로 수확과 판로 확대에도 앞장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또 업무협약식 당일에는 코로나9 극복을 위하여 65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도시를 한국신장장애인 전북협회부안군지부, 격포초등학교, 위도면과 위도초등학교에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민주평통 고창군협의회 20기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 고창군협의회(회장 오봉열)는 지난 8일 오후 4시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20기 전북고창군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전북 고창군협의회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오봉열 협의회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향한 길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임 오봉열 회장은 개인자격을 300만원에 기탁하기도 했다.

유기상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고창군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제20기 민주평통이 한반



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고창군의회 의원도 참석해 민주평통 20기 출범을 축하했다.

9월1일 출범한 제20기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지문·견의를 성실히 수행하고, 통일외지를 대변할 국내·해외 대표급 인사 2만여명을 위촉했다. 고창군협의회는 지역위원, 직능위원 총 44명이 위촉되어 2년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